

1년에 '딱 닳새'... '비밀의 숲'이 열렸다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물찾오름 탐방 한시 허용
가파른 길 걷다 다다른 산정호수 비경 등 빗속 만남
'검푸른 물결 일렁이는 영험한 곳... 자연이 허락해야'

1년에 딱 5일 동안만 허락된 곳이 있다. 설 새 없이 이어지는 빗줄기 속에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기 그 길을 탐방객들이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왕복 50분이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기에 짧게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지난 15일 오전 사려니숲길 안에 자리한 물찾오름. 제주도가 오름 훼손을 막고 식생 복원을 위해 시행 중인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올해로 15년째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물찾오름이 사려니숲 에코 힐링 체험 행사를 맞아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개막 전 사전 예약을 받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하루 6회(회당 최대 25명)에 한해 해설사의 안내 아래 탐방을 허용한 것이다.

이날 탐방객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 기준

으로 1시간 30분~2시간쯤 도보로 이동해 물찾오름 표지석이 있는 곳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물찾오름 속 '비밀의 숲'을 마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서인지 '노쇼' 사례가 거의 없었다.

참가자들은 물찾오름 입구에서 스틱 사용 금지, 안전 문제 등 자연환경해설사가 당부하는 주의 사항을 들은 뒤 가파른 길을 따라 한 줄을 이뤄 오름 정상으로 향했다. 탐방객들은 물찾오름의 하이라이트인 산정호수에 도착하자 걸음을 멈추고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드러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강완국 해설사는 "제주 360여 개 오름 중에 물이 고여 있는 오름이 몇 개 없다"면서 연중 물이 차 있는 등 오름 명칭이 유래한 자연을



지난 15일 물찾오름 탐방객들이 산정호수에서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선희기자

풀어냈다. 강 해설사는 중간중간 오름에 자라는 산수국, 상산나무 등 식물들 이야기도 전했다.

곳은 날씨로 제주도 조천읍,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에 걸쳐 있는 오름의 정상에서 펼쳐지는 한라산 등 주변의 장관을 두 눈에 넣지 못한 탐방객들은 다음을 기억하며 발길을 돌렸다. 부산에서 왔다는 최민영씨는 "미개방 지역이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기

대하고 예약했다"며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탐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오름에서 내려왔더니 또 다른 탐방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찾오름 입구에 있던 어느 해설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물찾오름은 1년 내내 검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영험한 곳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름에 올랐으면 합니다." 전선희기자

"함께 춤추고 만들며 숲의 가치 느껴요"

사려니숲 생태 공방·숲에 누가 사나 등 체험 다채

숲속에 작은 공방이 차려졌다. 탐방객들은 은행알 등을 이용해 무당벌레 모양의 브로치를 만들고 수명을 다한 매죽나무를 피리 목걸이로 재탄생시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가 주관하는 열다섯 번째 사려니숲 에코 힐링 체험이 열리는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 쪽 열린 무대 옆에 마련된 '사려니숲 생태 공방'이다.

지난 14일 행사 개막과 함께 운영 중인 생태 공방에는 숲길을 걷기 위해 나온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이는 물론 성인 참가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방에 둘러 나만의 공예품을 제작하며 숲길 여정가에서 만났거나 만나게 될 자

연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 공방은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가 이달 18일까지 계속되는 에코 힐링 체험 기간 동안 꾸리는 사려니숲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해설사협회에서는 생태 공방에 더해 '사려니숲에는 누가 사나', '에코 힐링 프로그램', '물찾오름 자연환경 해설'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사려니숲에는 누가 사나'는 방문객들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숲에 있는 나무, 새, 곤충 등 여러 생물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숲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끈다. '에코 힐링 프로그램'은 생태 춤, 명상, 시 낭송, 오카리나



사려니숲 생태 공방에서 무당벌레 모양 브로치, 나무 피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연주 등을 짝맞하게 이어가며 사려니숲의 생명력을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물찾오름 자연환경 해설'은 에코 힐링 체험 기간에만 개방되는 물찾오름에 얽힌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행사 전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모여 맞춤형 스테디를 하며 기획했다. 행사장에 상주하는 자연환경해설사는 매일

18명에 이른다.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고정식 회장은 "행사 참가자들의 반응 등을 참고해 전년보다 나아진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문객들이 숲길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려니숲의 진정한 가치를 새겨받으면 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마, 도대체 언제 끝나나...

제주 24일까지 비 예보... 시간당 30~80mm 폭우도

제주지역은 오는 24일까지 비 예보가 이어져 재해 상황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지형적 영향을 받는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18일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전역에 100~200mm로 예상되며 산지에는 3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이번 비는 일주일 가량 장기간 이어지고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

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토사 유출에 유의하고 산사태 및 낙석을 주의해야 한다.

또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7℃ 낮 최고기온은 29~30℃로 예상되며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7~29℃로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전망이다. 김도영기자

1학기 중간고사 재시험 10건 있었다

도교육청 모니터링 결과 중 3개교·고 3개교 확인
"문항 출제오류로 재시험"

올해 1학기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5곳에서도 재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 모 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평가의 기출문제 출제로 인한 재시험 등과 관련한 현안 보고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17~22일 해당 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대상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재시험 사례 모니터링 결과 제주시의 중학교 2교 2건, 고등학교 3교 6건 등 총 8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재시험 사유는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모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재시험 사례는 6교 10건이다. 이를 두고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사안이 심각하다"며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교육청 차원의 입장 표

명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에 강승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평가만큼은 신뢰도, 타당도,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다. 주로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해 생겨난 것이고 학교에서 재시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 주의만 줬다. 정기고사를 보기 전에 반드시 전 교직원 연수를 하도록 재삼 강조했다"고 답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모 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 해당 학교 학생들이 먼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서술형 평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승민 과장은 "현재 서·논술형 평가 강화 TF가 구성됐고 중·고 1곳씩 연구학교도 운영 중"이라며 IB 학교 등을 벤치마킹해 지필고사에 서술형 평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별도 평가전문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FFF JEJU 제5회 농촌융복합 제주국제박람회
2023 K-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2023. 7. 21 금
7. 22 토
7. 23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푸드테크 X 미래의 농촌 X 축제형 박람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푸파페 제주**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의 새로운 이름,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 푸파페 제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파페 제주

푸파페 제주를 즐기기 위한 CHECK LIST!

- 최고의 '메이드인제주'만 모인 마켓 플레이스
청년농부 장, 로컬푸드, 전통주, 화장품, 커피, 와인 등 맛난 먹거리와 제품 푸짐
- 직접 보고 만들고 즐기는 온가족 참여 가능한 체험공간
다양한 만들기와 곤충 체험, 건강한 메밀 풀장, 간식과 음료까지 온가족이 즐겨요~
- 푸파페 제주의 하이라이트는 팡팡 쏟아지는 선물
푸파페 OX퀴즈 한마당, 매일 100명에게 쓰는 명수증 이벤트, 그 외에도 푸짐한 선물 이벤트까지~
- 푸드테크 & 농촌융복합산업 글로벌 전문가 총출동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브라질, 등 농촌융복합산업 국제전문가가 모인 국제포럼도 주목!

사전등록에 당첨된 참가자엔 현장에서 선물이 와르르!

푸파페 제주 참가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현장에서 상품 지급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 이벤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식 인스 참여를 위해 미리 사전등록 및 인스타그램 팔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b: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미디어 파트너 **제주의소리** **제주 CBS**